

# 우리도 #MeToo 합시다

지난 해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이 공개되면서 여성 배우들 사이에서 #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여성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이 지속되지 않게 하겠다는 뜻에서 과감히 얼굴을 공개하며 자신이 당한 일을 고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운동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나갔고, 지금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한 남성으로서 저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그릇된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다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조금 심한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이 발미를 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말합니다. 강자인 남성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해 왔으니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약자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는 그 수치심과 불쾌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뭇물처럼 터져 나오는 여성들의 아우성을 들으면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언행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MeToo 즉 "나도 그랬다"고 인정하고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최대한의 예의와 존경심으로 자매들을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들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목회자의 사모 혹은 여성 목회자도 자주 당하는 일입니다. 추근대는 눈빛과 말을 무심히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은밀하게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딤후 5:1-2)

교회 바깥에서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한 방법입니다. 남성들끼리 나누는 성적 농담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면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성적 도구로 묘사하는 음란 영상은 더 더욱 해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보고 최대한의 존경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 안에서 자라면서 마음과 몸에 배인 이 악습이 제거되도록 늘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회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린 음란의 영이 우리를 통해 쫓겨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연대와 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어야 할 미덕입니다. 이런 미덕을 품기 원다면 우리도 #MeToo 운동에 나름대로 참여해야 합니다. "나도 그랬다"고 겸허히 인정하고 자신을 고치며 "나도 당했다"는 사람일수록 회개시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딸들이 또 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18년 2월 4일 주일설교 "찢어서 낸 생명의 길"  
"The Way of Life Opened through His Death"

-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장(통53)

---

-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

- 말씀나눔**
  -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 3.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돌아가면서 한 두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4. 당신의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 기도**
  - 1.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 2. 전구 선교사님과 쿠바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 중보기도**
  - 1.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중보하십시오.
  - 2.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소식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


-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통519)

---

-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 수요 예배

오후 8시 / 분당  
인도: 김영봉 목사



찬양과 기도

말씀

찬양과 기도

.....

로마서 강해

.....

다같이

김영봉 목사

다같이

### 사역자 연락처

직책	이름	전화	이메일
담임목사	김영봉	703-850-9447	bong320@gmail.com
영어권 담당목사	Danny Chung 대니정	213-210-4057	dannychung50@gmail.com
어린이 담당 디렉터	Alex Kim 알렉스김	571-201-0701	munkyong@hotmail.com
English Worship Pastor	HK Kim 김형균	703-346-0001	hkkim122@gmail.com
사무행정	윤문경	703-944-7827	dalpool@hotmail.com

- '전교인 성경일독' 이번 주 진도는 **시편 3-8편** 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신약일독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www.koinonia2018.com](http://www.koinonia2018.com)에 접속하시면 매일 읽을 본문에 대한 간략한 묵상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예배에서 말씀 전해 주신 전구 선교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전구 선교사님의 쿠바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쿠바 선교에 관심있는 분들은 예배 후에 ROC에 마련되어 있는 테이블에 오시기 바랍니다(쿠바 선교팀장: 주규리).
- 오늘 예배 후에는 '사역한마당' 행사가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 안내 받으시고 또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간을 내어 돌아 보시고 교수들과 사귀는 시간으로 삼기 바랍니다.
- 봄철 제자반 지원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회멘토링 사역원에서 주관하는 '꿈마실'(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비전투어)팀이 2월 14일(수)부터 18일(주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잡자리를 제공해 주실 가정이 한 가정 더 필요합니다. 여학생 3명이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 초청(목, 금, 토)이나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실 분들은 조성연 팀장(703-626-190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꿈마실' 이라고 적어 봉헌해 주십시오.
-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임원회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050 남성 제자반이 이번 화요일(6일) 시작됩니다. 장소는 교회 2층 유스 라운지입니다.
- 2월 14일(수)은 Ash Wednesday(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 날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CUMC-KUMC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두 교회 합동 예배는 처음입니다. 이 의미 있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3일(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13-215호실에서 임원수련회로 모입니다(강사: 조영진 감독). 임원들은 미리 계획하셔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 방문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담임목사와 함께 나다니엘 센터를 방문하여 현지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사역 현장을 돌아 보는 '비전 투어'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문영애 팀장(703-606-822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3월 13일(화)-17일(토)  
비용: 비행기표는 각자 부담이고 현지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마감: 2월 18일까지

- 교우 모두가 '삼중 사림'(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쿠바(전구 선교사), 아이티(김은숙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 주일예배

- **한어 성인예배(KS)**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 20분 / 208호
- **Youth & ES**  
오후 2시 / ROC
-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213-215호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 본당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 제자반

- **4050 남성제자반**(인도: 김영봉)  
화요일 오후 7:30-9:00(교회 등)  
2월 6일부터 10주간
- **여성성경필사나눔반**(인도: 도현주)  
목요일 오전 10:00-12:00(목사관)  
2월 1일부터 10주간
- **4주 제자학교**  
**토요일 오전반:** 3월 3일부터 4주간  
**토요일 오후반:** 4월 7일부터 4주간
- **에바다 성경모임**(인도: 기수양)  
토요일 오후 6시-9시 / 217호

**2월 신약일독진도** ([www.koinonia2018.com](http://www.koinonia2018.com)에서 묵상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5일(월)	6일(화)	7일(수)	8일(목)	9일(금)	10일(토)
시편 3편	시편 4편	시편 5편	시편 6편	시편 7편	시편 8편

### 주일 섬김과 봉사

- 예배: 공효선/김인애/김정규  
주준호/주규리/이성래
- 바나바: 조관식/김영애/오한나/  
김희옥/이수진
- 멀티: 이백호/윤석호/김애린/  
정도균/이유경/이애나
- 주차: 장호범/박윤빈/김성식
- 도서: 허옥신/김용규
- 성찬식: 류수연

### 2월 봉사 안내

- 안내와 헌금: 전영호/목수정
- 2월 11일: 회중기도: 김성식  
성경봉독: 김인애
- 주일 친교: 오늘(2/4): 등대속  
다음주(2/11): 햇빛속

### (1월 28일)

한어성인예배(KS)	162	주일학교	\$66
영어예배(ES)	10	주일헌금	\$290
청소년예배(Youth)	29	주정/월정	\$3,720
교회학교(Sunday School)	18	십일조	\$1,300
<b>주일예배 출석 합계</b>	<b>211</b>	감사헌금	\$180
		선교헌금	\$90
수요예배(1/24)	35	사랑헌금/기타	
<b>주간예배 출석 합계:</b>	<b>246</b>	<b>합계:</b>	<b>\$5,646</b>

### 2018년 2월 4일 | 성탄후 여섯 번째 주일

	본당 / 2:00 pm	
사회: 김영봉 목사	피아노: 이애령/오르간: 김성은	
전주 Prelude	오르간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점화자	
● 경배 찬송 Hymn of Invocation	“하늘에 계신” 635장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다같이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같이
● 개회 찬송 Hymn of Praise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장(통53)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다같이
●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다같이
회중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장돈식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서 10장 19-20절 Hebrews 10:19-20	손지현
찬양 Anthem	하나님의 영광	성가대
설교 Sermon	“ <b>찢어서 낸 생명의 길</b> ” The Way of Life Opened through His Death	전구 선교사
응답의 기도 Prayer of Reflection		다같이
성찬식 Holy Communion		말은이
● 송영과 봉헌 Doxology & Offering	“이 천지간 만물들아” 5장(통3)	다같이
목회 기도 Pastoral Prayer		김영봉 목사
● 결단의 찬양 Hymn of Commitment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통519) “Are ye able,” said the Master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영봉 목사
인사와 광고 Greeting & Announcements		김영봉 목사

###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Tithe into the trays in the chapel.